

“첫사랑을 만난 듯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해방이 참다운 광복이었을 까요? 저는 해방을 만주에서 맞았습니다. 열 네살 때였죠,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고향인 평양으로 오느라 너무 애를 썼기에 광복절이 되면 그 시절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에 어머니가 여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에게는 해방이 고생으로 떠오른다. 그는 그래서 그런지 해방이 참다운 광복이었냐는 반문으로 말문을 연다.



“그때 만주일대, 특히 우리가 살던 길림에서 중국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은 대단했습니다. 조선 사람에 대해서도 고운 시선이 아니었죠. 자랑스러운 애기는 아니지만 식민 통치를 하던 일본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중국사람에 비해서는 대우를 했던 편이었죠. 3등급으로 나누면 2등급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방이 되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살림살이며 귀중품들을 내다 팔아 여비를 마련했습니다. 물자가 귀했기에 하다못해 쓰던 테이블보며 커튼까지 팔았죠.”

평양으로 가는 노정이 험난했다.

“기차를 탔었죠. 몇 번을 갈아타야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긴 노정이 아닌데도 중국사람들이 어찌나 횡포를 부리는지... 터널마다 중간에 기관차를 세워 놓고 승객들이 돈을 걸어 줘야만 다시 출발 하곤 했습니다. 어차피 조선인이라고 티를 낼 수는 없었는데 어린마음에도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싶었죠.”

이렇게 고생고생 하며 만포진 까지 기차로 왔고 그다음에는 걸기도 하고 차를 얻어 타기도 하면서 평양 까지 오는데 보름 가까이 걸렸다.

“60주년을 맞아 돌아보면 많은 발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복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 석연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세기 넘게 지속되는 분단, 물신사상의 팽배, 환경오염 등 열거하자면 많죠. 저는 늘 우리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진정한 광복을 쟁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박영숙 이사장은 우리나라 여성계뿐만 아니라 기독교 운동계, 환경운동계의 원로로 통하는 몇 안 되는 활동가. 그의 삶의 역정을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 운동, 환경운동, 그리고 그런 운동권과 연계 됐었던 야당 운동사 까지 한눈에 보인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다. “사실 저는 온건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소리 들었고 성격도 여성적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모진 세상이 저를 대단한 활동가로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무슨 팔자 같은 게 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결코 후회하거나 잘못 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가 사회활동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 재학 시절 YMCA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부터다.

“따지고 보면 저는 온건한 사람입니다.”

만주서 평양에 돌아 와서는 그곳의 명문 미션스쿨 정의 여중을 다니다 공산치하를 피해 월남을 했고 친척이 있는 광주에 내려가 살았기에 고등학교는 전남여고를 졸업했다는 데 앞으로의 세상은 영어가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로 52년 이회대학 영문과에 입학했다.

“학교에서 학업으로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수업 보다는 농촌계몽활동, 고아원 양노원 방문 등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재주는 없지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꺾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첫사랑을 만나듯이 열심히 해야 한다고 역설 하곤 하는데 그 무렵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YWCA 중앙의 선배들과도 접촉이 많았는데 이회호 선배 등의 적극적인 추천에 의해 학교를 졸업하고는 직장으로 Y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YWCA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최장수 총무라는 꼬리표를 달 만큼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Y 우먼이다.

첫사랑을 만난 듯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실제 그랬다는 그 스스로의 사랑은 꽤나 늦게 찾아온다. 일이 먼저 여서 그랬는지 모른다.

그는 37살인 나이에 열 살 연상의 기독교 학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이야 말로 그의 운명의 시계를 한참이나 바꿔 놓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세상에 그런 프로포즈가 어디 있답니까? 어느 날 저녁 때 만나자고 그러더니 대뜸 우리 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해야겠는데 ‘우리 결혼 합시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난 그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듯 결혼했죠. 참 단순했습니다.”



‘결혼합시다’ 한마디에 그만...

그 무례한 청혼자가 바로 안병무 교수. 한국 민중신학의 체계를 세우고 한국적 신학을 세계에 내놓은 '신학계의 큰 별'로 불리웠던 그 안병무박사다.

그 무렵에도 안교수는 그 계에서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신에 기독교 학자로 주목받는 인물이었고 박 이사장은 그와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갖기도 해서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는 했다.

“어머님이 큰 병환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웠는데 소원인 안교수 장가 가는 것 보는 것이라니까 그 독신주의자가 효도 한다는 기분으로 마음을 바꾼 것이었죠, 저는 거기에 끌려갔던 거죠.”

설마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끌려 갔으랴마는 그 후 박영숙 안병무 부부는 어울리는 한 쌍

으로, 기독교 운동권의 모범 부부쯤으로 인식되면서 여러 일을 했다.

“저는 한번도 안 박사한테 대든 적이 없었습니다. 부부 싸움이란 건 상상도 못하죠, 일방적으로 훈계 받고 야단 맞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실제 사회의 식에 관한 한 그는 내 스승이었습니다. 안 박사와 결혼 하지 않았으면 분명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 틀림없죠.”

늦게 결혼을 했기에 당연히 아들도 늦게 낳은 편이다. 40이 다 돼서 낳은 아들도 이제는 40이 다 되었지만 언젠가 어느 글예선가 농담이라도 부모님이 다투는 모습이란 게 어떤 건지 궁금하다 쓰기도 했단다. 아들의 이야기는 엄마가 자기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싫다는 얘기라고 여긴단다.

“안박사는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한 석연치 않은 것에 대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관대한 측면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잘못했거나 몸이 일이 잘못돼 ‘오늘 죽었구나’하고 불호령이 떨어질까 조마조마 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건 별 일 아니겠지 싶은데 역정을 내는 그런 일들이 몇 차례 있었죠. 말하자면 남들과는 다른 확고한 자기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특히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남편 안병무 박사가 74년 3.1 명동 성당 구국선언에 연루돼 형무소에 수감되면서부터 박이사장은 확실한 운동권이 된다.

구속자 가족의 일원이 되어 들어간 사람들에게 대한 뒷바라지와 함께 각종 집회에 참여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막연했던 생각이 구체화 되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안박사는 10개월 후에 출소했다.

“안 박사가 워낙 몸이 약했기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가장 빨리 나온 편입니다. 하지만 빨리 나온 게 그를 더 괴롭혔습니다. 남들은 들어가 있는데 나온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고 매일 같이 외출 해 사람 만났고 또 매일 같이 저녁 마다 손님들이 수유리 우리 집에 몰려 들곤 했지요.”

이 때문에 과로가 겹쳐 박이사장이 몸살로 쓰러져 앰블런스가 오기도 했고 이후 안 박사의 지병이 된 심근경색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운명을 바꾼 3.1 명동성당 시국선언

그 무렵부터 박 이사장은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고 저녁이면 안 박사와 일에 관한 토론을 했다.

상대적 온건 노선인 YWCA와는 총무를 그만 둔 뒤에도 이사로서 비교적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 했지만 이사회 모임에 가면 다른 세계의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통에 발길이 뜸해졌고 70년대 후반 들어서는 그나마 더 뜸해졌단다.

대신 민우회며 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운동 쪽에 더 비중을 두었고 환경운동이 생소했던 그 무렵 환경을 얘기하는 최초의 선각자적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박 이사장이었다.

79년 10.26이후 잠깐의 서울의 봄을 맞았지만 곧 5공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안,박 부부 활동가의 일도 많아지게 된다. 박이사장은 여성단체 협의회의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고 당시 관변 언론으로 전락 했었던 KBS에 대응하는 시청료거부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 했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도 적극 나섰다.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직선제가 쟁취 되면서 박이사장 인생에도 커다란 전기가 찾아온다. 현실 정치권으로부터의 일종의 차출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정말 적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양하고 고사 했습니다. 그래서 제 뜻이 받아들여진 줄 알고 집에 가서도 마음 편하게 됐다고 했는데, 남편은 ‘여자들이란 참’ 하더군요. 그랬더니 다음날 신문에 먼저 발표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재야 여성계 영입 케이스로 평민당 부총재로 가기로 했다고,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작된 정치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87년 대선 이후 김대중 총재가 잠깐 일선에서 물러섰을 때 총재권한 대행을 하기도 했고 13대 국회에 전국구로 등원했고 평민당이 신민당을 거쳐 민주당으로 개명했을 때도 최고위원 당무위원을 맡는 등 92년 대선이 끝나고 영국 유학을 갈 때 까지 6년 동안 정치권에 몸을 담았다.

6년이라면 적지 않은 세월이었고 또 그 시기가 격동의 시기였음에도 정치적과 연관해

서 커다란 기억이 없는 것을 보면 역시 정치가 그와 철석 같이 어울리지는 않은 모양이다.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정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전기 제품이라고는 낡은 라디오 한대 밖에 없던 그의 집에 전기 밥솥 세탁기등의 가전제품이 들어가야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 일이라한다. 일찍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을 쏟았던 박 이사장은 집안에 가전제품을 쓰지 않았다는데 주부가 밖의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일들을 부자(父子)가 해야 하는 통에 할 수 없이 전기밥솥부터 들여 놓게 됐다는 것.

“정치 라는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그리고 사람한테 실망을 해야 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침 말 다르고 저녁 말 다른데 참 행동하고 결정하기 어렵더군요. 그래도 처음 들어갔을 때와 나올 때를 비교해 보면 꽤 많은 발전이 있었다 싶기는 합니다.”

그의 정치권 경험은 두 번의 대선 패배라는 전적으로 끝나고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 유학을 결심한다.

2년 동안 영국 캠브릿지 대학에서 환경과 관련한 공부를 했던 것이다. 남편 안 교수는 복직된 학교의 강의도 있고 해서 박 이사장 혼자 떠난 유학 이었다.

“가만히 생각 해 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같습니다. 책 읽는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즐거움을 진작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저녁에 남편과 전화를 하면서 읽은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라 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고 남편이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이는 그 방면에도 참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안 읽은 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 나이 되서도 남편이자 스승이라고 했었지요.”



너무도 행복했던 캠브릿지시절

2년의 영국 캠브릿지 시절 남편의 권유에 따라 특별히 학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환경 문제에 관 한 새 지평을 열 수 있었다.

“지금이 우리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의 위기입니다.

얼마전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시키고 철야농성을 하며 주요 활동가들이 단식하고 ‘환경비상 1만환경인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정부의 반환경정책의 재고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웬 환경타령이냐고 하는 이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아는 환경인들이 운동 사상 처음으로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후손들에게 빛을 남기지 말라는 조상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후

손에게 재앙을 물려줄 수 없다는 데서입니다.”

환경인들이 오늘을 환경비상시국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온몸으로 지켜 온 생태환경이 무너지려는 이 시기에 환경인들이 철저하게 무력화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

“국제사회에서 중시되고 있는 협치(協治·가버너스) 체제를 우리도 시험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시민의 국정참여가 권장되는 상황임에도 개혁과 국민의 참여를 표방하고 출범한 참여정부에 환경인들의 참여가 없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사회와 후손의 미래, 그리고 국토의 보전이 환경인들만 걱정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환경운동이 자기성찰을 통한 혁신을 이뤄내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 할때 오늘의 위기가 내일을 위한 기회로 바뀌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돌아온 그가 환경운동 말고 힘을 쏟아 얼마간의 성과를 이뤄낸 일이 바로 여성재단 설립이다.

“여성단체가 많다고는 하지만 재정이며 활동 환경이 너무도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 건전한 여성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큰 일로 삼는 여성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평생을 여성운동가로 자처 했던 제가 후배들에게 주는 선물인 셈이죠. 당초 1백억 기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5분의 1밖에 마련하지 못해 안타깝기는 합니다.”

사실 여성 재단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치권에 외도(?)를 했던 노고의 댓가이기도 하며 이희호 여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바탕이 됐던 일로 여겨지고 있다.

언급한 대로 이희호 여사는 대학 과 선배이기도 하고 YWCA 총무 일을 박이사장에게 물려준 그야말로 직계선배.

“실제 이 여사님 이야말로 준비된 영부인이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저런 연유로 제가 그 심부름을 자주 한편이죠, 그랬더니 나중에 영부인께서 월하나 선물로 줄 수 있을까 하시더니 재단 만드는 일에 애를 써 주셔서 십시일반의 형태로 기금이 마련 됐죠.”

젊음의 패기와 희망은 우리의 미래

여성재단은 충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년 각 여성단체의 신청을 받아 각종 행사며 사업의 예산을 지원 하는 큰 일을 하고 있다. 지원과 격려의 일 그것은 이제 7순을 넘긴 원로 활동가 박이사장의 몫인가 보다. 청년들을 위한 마지막 한마디.

“청년들에게는 양양한 전도가 있습니다. 선배들의 잘못된 일들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안고 새롭게 나라를 꾸린다는 그런 패기와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처에서 그런 희망의 싹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첫사랑을 만난 듯 열심히 한다면 그 애뜻하고 소중한 희망이 반드시 꽃피게 되어 진정한 광복, 참다운 해방을 쟁취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 젊은이의 희망을 말하는 노(老) 여성, 환경 운동가의 눈은 젊은이의 그것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힘이 넘쳐 보였다.

(대담, 글 안동일 위원)